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관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0월 7일 금요일 (음 9월 7일) 제165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임실N치즈 축제 개막과 함께 들기 행사를 함께했다.

6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심민 임실군수, 김경수 육군35사단장, 도의원 및 주한 외교사절단, 임실 군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해 2016임실N치즈 축제 행사를 가졌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주요내빈은 무대에 마련된 개막퍼포먼스인 치즈케익 만들기 행사를 함께했다.

군산시, 스마트관광시티로 변신

군산시가 공공와이파이를 통한 스마트관광시티로 거듭난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효성ITX(주)와 (주)KT, 군산시의 상호협력력을 통해 군산 근대화도시에 공공와이파이(Wi-Fi Free) 등을 활용한 스마트관광 플랫폼을 구축한다.

도는 군산시를 시작으로 향후 스마트관광 플랫폼을 구축, 도 전체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로써 시범지역인 군산 근대화도시를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은 앞으로 무료로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물론 주요관광명소나 유명음식점 등의 정보와 쿠폰 등을 제공함으로써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스마트한 관광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1단계(2016년) 사업으로는 효성ITX(주)와 (주)KT와의 협력으로 군산 근대화도시에 공공와이파이 및 비콘 등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 주요관광명소 및 유명음식점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도, 효성ITX·KT 등과 상호협력 통해 근대화도시에 공공와이파이 활용 향후 관광 플랫폼 구축 도내 관광산업 활력

앱 등을 개발해 내달 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2단계(2017년) 사업으로는 고군산군도의 문화 체험 및 관광 투어를 기반으로 한 VR, AR, 실감형(체감형) 등 약 20억 규모의 다양한 콘텐츠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 앱 개발을 기반으로 스마트투어관광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3단계(2017~2018년) 사업으로는 시군 대표관광지 인프라 구축 및 사업 확대방안으로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을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시의 스마트 관광 사업 결과를 보고 향후 14개 시·군의 주요관광지

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고도화, R&D 연구,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정책 수립을 통한 도 관광 통합 솔루션개발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도는 각 단계별 인프라 구축(공공와이파이와 비콘)을 통해 수집되는 개인의 위치와 동선, 소비 등의 자료를 축적, 국내 및 외국인에 대한 개인별 분석으로 관광 상품 개발 및 일자리 창출,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전략 등의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의 이 같은 계획은 타 시도가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관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진행된다.

최근 '포켓몬 고' 게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GPS구역으로 분리된

속초지역에서만 게임이 가능하게 되자 속초시에서는 무료 Wi-Fi 지도를 배포하고 각종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속초시를 방문하는 인구와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른 여러 상점과 사람들이 몰리며 뜻밖에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 미디어를 연일 보도하는 등 스마트관광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제주도는 주요 관광지과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 네트워크 및 비콘,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스마트관광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하고 관광객 증가 및 주민의 실질적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김인태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정부의 미래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된 가상증강현실 스마트관광시티를 새로운 투어 플랫폼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전북을 차세대 신 명품 관광지로 성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토·일요일 신문 없습니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할 수 없다”

전국 시도교육감협 입장 고수 “시도교육청 재정위기 정부 대책은 무너져 보육대란은 정부 책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6일 13개 지역 교육감들은 결의문을 내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해 시·도교육청은 재정위기단체 지정으로 내몰리고 있고 정부의 무대책으로 학생의 안전과 교육은 무너지고 있다”면서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시설 내진 보강, 교실 석면 교체, 우레탄 시설 교체 등은 요원해졌으며 학생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마저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정부족을 호소했다.

실제 내년 교육부 예산을 보면 교부금에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5조1,990억원이 편성된 상태

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로 구성되는데 교육부는 교육세를 따로 떼어 내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방과후학교, 초등 돌봄교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5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 편성과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 시 징역 폐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을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면서 “이에 따른 교육대란과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문에는 보수 성향의 대전과 대구, 울산, 경북교육감 등은 불참한 가운데 전북과 경기, 서울, 강원, 인천, 충남, 부산, 충북, 광주, 제주, 전남, 세종, 경남 등 13개 지역 교육감이 참여했다.

/고민형 기자

본사 신임 회장에 김조웅씨 취임

본사 신임 회장에 전 북도 민일보사 상무를 역임한 김조웅 씨(사진)가 취임했다.



신임 김회장은 지난 5일 오후 본사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 회장은 전주일보 대표이사장을 비롯 전민일보 사장 등 도내 언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언론인이다.

언론계와 인연을 맺기 이전에는 기업활동을 하기도 하는 등 경영 전문가로 알려졌다. 온화한 성품에 인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

▶ 매일 INDEX

2면 6·25 참전 국군 전사자 유해 전달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고 정만대 일병의 유해가 유족에게 전달됐다.

8면 “못배운 한 풀어줘서 고마워요” 군산시 늘푸른학교가 운영 중인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평생학습 역할을 해내고 있다.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원샷엔 hite

All New

친맥하라 hite | EXTRA COLD

하이트진로

43° ICE POINT
EXTRA COLD
1933

광고, 사진 촬영은 김경희나 기업을 일으키며, 문건이나 직인 등 시교발생물을 높입니다